

격려사

온 산천에 돌아나는 싱그러운 신록처럼 온 누리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임진년 5월에 이수예 작가의 첫 개인전 ‘사찰 단청문양 모사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불상을 조각하고, 교리를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불교공예품을 만들면서 고유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교미술은 1700여 년의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생활방식과 문화 속에 스며들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미술이라는 점은 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實例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주제인 단청은 세계적으로도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한국불교미술의 한 분야입니다.

‘사찰 단청문양 모사전’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옛 단청의 화려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개인적으로 매진해 온 단청연구의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작가의 역량이 무궁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회 전시의 성과로 우리나라 불교미술에 크게 기여하는 뜻 깊은 불사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한 이수예 작가의 노고에 진심의 격려를 보냅니다. 본 전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치길 바라며, 항상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5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